전남도, 재해위험지역 정비 국비 확보 시동

내년 총 사업예산 6390억원 규모
풍수해 예방 등 신규 56지구 발굴
"재해 위험 요인 적기 해소 노력"

전남도가 2025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국비 3195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639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 56지구를 발굴, 국비 확보에 시동을 걸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인명피해 우려 등 재해 취약 시설과 지역을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2025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발굴한 신규 지구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5지구 2300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8지구 3220억원 △재해위험급경사지 정비 22지구 668억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11지구 202억원이다.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은 침수·붕괴·유실 등 재해 취약 요인을 해소하는 주거 단위 대규모 재해예방 사업이다.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하천, 펌프장, 우수관거, 급경사지, 저수지 등을 종합 정비한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확대 정책에 따라 2024년(3지구 1219억원)보다 늘어난 5개 지구 총사업비 230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발굴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을 수시로 방문해 사업의 당위성을 중점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최대한 많이 선정되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송광민 전남도 자연재난과장은 "최근 우리나라는 집중호우 등 예상치 못한 기상변화가 일상이 된 뉴노멀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해 위험 요인을 적기에 해소하는 등 도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올해 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지난해보다 47% 증액된 국비 1197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1998년 사업 도입 이래 최다 규모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광주시 '윤 대통령, 국가AI위원회 신설' 환영

"AI 2단계 사업 즉시 추진 희망"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인공지능(AI) 위원회를 신설해 직접 챙기겠다"고 한 것에 대해 광주시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9일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정부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께서 국가AI위원회를 직접챙기는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 주재 국가AI위원회의 1호 안건으로 '광주 인공지능 2단계 사업 즉시 추진'이 가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인공지능·AI반도체 분야에 2027년까지 9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AI반도체 혁신기업의 성장을 돕는 1조4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 부문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를 신설해 직접 반도체 국가전략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국가AI위원회는 AI반도체 이니셔티브의 추진체계 역할을 하게 될 대통령 직속기구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첨단3지구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AI집적단지) 내에 세계적 수준의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구축한 뒤 서비스를 시작했다.

광주시는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을 토대로 2025년부터 지역의 미래 핵심 성장동력인 인공지능 집적단지 2단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을 요구하고 있다.

2단계 사업은 1단계 인프라를 활용한 성과 창출과 확산을 통해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공지능 인프라 고도화'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도시 규모 인공지능 실증' '인공지능 글로벌 생태계 조성' 등이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 봄철 '성홍열' 안전수칙 당부

전남도는 최근 일본에서 성홍열과 동일한 원인균에서 발생하는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STSS)이 유행함에 따라 기침예절 준수, 손 씻기 생활화, 상처 부위 노출 최소화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국 성홍열 발생은 810건으로, 전년보다 6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32건으로 전년보다 68.4% 증가했다. 지난해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 의심 사례는 1건이었다.

일본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 환자는 코로나 유행 기간 발생이 줄었다가 지난해 941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올해도 지난 2월 말까지 414명이 발생하는 등 예년보다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독성쇼크증후군 초기에는 고열, 오한, 메스꺼움, 인후통 등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가벼운 호흡기 증상이 일어나지만, 중증으로 진행되면 괴사성 근막염,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악화한다. 다만, 사람 간 접촉을 통한 전파는 드물며 국내 발생이 매우 낮아 유행 가능성은 낮다.

독성쇼크증후군 예방을 위해서는 65세 이상 고위험군에서 고열, 발진, 저혈압, 근육통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상처가 발생한 경우 상처 부위의 외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전남도는 지역 유입 차단을 위해 도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독성쇼크증후군(STSS)과 동일한 원인균인 성홍열 전수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곽지혜 기자

완도수목원, 12월까지 숲 해설 무료 운영

국내 최대·유일 난대수목원인 완도수목원이 차별화된 산림교육 서비스를 위해 12월 초까지 숲 해설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숲 해설 프로그램에서는 숲해설가, 유아 숲 지도사 등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숲해설가와 함께 완도수목원을 거닐며 남부지역에 자생하는 난대수종과 꽃, 곤충 등 다양한 생물을 관찰하고, 산림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다양한 산림 체험 제공을 위해 유아·청소년·성인 등 대상별로 특색 있는 숲해설 프로그램이 월별로 진행된다. 또 연계 프로그램으로 나뭇가지, 열매 등 숲 부산물을 이용해 나만의 공예품을 만드는 생태공예체험(유료)도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신청은 사전 예약으로 이뤄진다. 다만 산림 체험 서비스 확대를 위해 소규모 성인 해설의 경우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 누리집(https://jnforest.jeonnam.go.kr/)을 참고하거나 완도수목원(061-550-3545·35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완도자연휴양림에서도 난대림 체류형 산림 체험을 위해 휴양림 이용객을 대상으로 무료 숲해설이 진행된다. 상왕산, 관음사지, 황장사바위 등 휴양림 주변 산과 유적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내 이용객의 관심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곽지혜 기자

전남도-국립의대 유치 범도민추진위 간담회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전라남도 국립의대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 집행위원들이 지난 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국립의대 유치를 위한 파이팅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 AI영재고, 첨단3지구 AI집적단지 인근 설립

학습연구·기숙사동 내년 착공
국가AI데이터센터 활용 강점

광주 AI(인공지능)영재고등학교가 광주과학기술원와 인접한 첨단3지구 인공지능(AI) 집적단지 바로 옆 부지에 건립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9일 시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부지 크기, 유해시설이 없는 주변환경 등 다양한 조건을 두루 살폈고,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은 지스트(GIST)와의 접근성이다"며 "AI영재고는 지스트(GIST) 부설로 운영되기 때문에 협업 프로그램 운영, 지스트의 기반시설(인프라) 활용을 위한 지리적 접근성이 필수요소였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인공지능(AI)집적단지의 국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강점도 작용했다.

광주 인공지능(AI)영재고등학교 설립은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추진됐으며, 지난 1월 '광주과학기술원(GIST)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돼 지스트(GIST) 부설 AI영재고의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시는 올해 AI영재고 실시설계비로 국비 31억7500만원을 확보했다.

AI영재고 설립 부지가 확정되면서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게 됐다.

광주 AI영재고는 약 1000억원을 들여 건축면적 2만40㎡, 지하1층~지상5층 규모의 학습연구동과 기숙사동 2개 동이 건립된다.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올해 실시설계를 거쳐 2025년 착공에 들어가 2026년 건축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또 교육과정 개발, 교직원 및 학생 선발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도 마련한다.

정원은 150명이며, 매년 50명의 학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총 3년 원칙이지만 무학년·졸업학점제가 운영되며, 인공지능(AI) 융합 교과가 편성된다.

광주시는 이로써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원), 실무인재 양성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AI) 인재양성 사다리를 탄탄하게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AI영재고는 광주의 인재양성 사다리 구축을 완성할 책임기관으로, AI대표도시가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며 "AI영재고가 첨단3지구에 자리함으로써 첨단3지구는 인공지능(AI) 기반시설, 기업, 교육기관이 집적된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인공지능(AI)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할 것이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시, 탄소중립도시 실현 '앞장'

강 시장, 기후에너지진흥원과 대화
도시텃밭·태양광설비 현장 살펴
시민연구반 운영 등 협업 강화

광주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다이어트'로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는데 앞장선다. 광주시와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지난 9일 오후 진흥원 다목적강당에서 '공공기관 현장대화'를 열어, '공공이 선도하고 시민이 함께하는 탄소중립도시 광주 실현'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현장대화에서 광주시와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은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확산(온도 낮추기 우수아파트 사업)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및 온실가스 감축 추진 △기후위기대응 시민연구반(리빙랩) 운영 등을 협업하기로 했다. 이날 대화에 앞서 강기정 시장은 진흥원 직원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분양한 도시텃밭과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현장을 탐방했다.

진흥원은 지난해 7월 민선8기 공공기관 구조혁신에 따라 국제기후환경센터를 탄소중립 중추 지원기관으로 기능을 강화한 광주시 출연기관이다. 광주시 탄소중립과 기후·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연구 및 실행 기능을 강화해 기후위기 대응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진흥원은 기후·환경·에너지 연구, 환경교육 및 시민실천 사업, 사업진흥 등 2045 탄소중립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광주지역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광주온도낮추기 우수아파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4년간 아파트 636개단지가 참여해 2만8149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례로, 광주권역 무등산 80% 면적에 나무를 식재한 것과 같은 성과를 거뒀다. 올해도 100개 아파트단지가 참여해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진흥원은 특히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100(RE100), 재생에너지100(RE100) 산단 조성 등 다양한 에너지사업을 발굴해 '광주 재생에너지100(RE100) 달성'의 중추적 역할을 할 계획이다.

노병하 기자